고전시가에 나타난 성 의식 고찰

김 명 희*

〈目 次〉

1. 서론
2. 고려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랑
3. 시조 문학에 나타난 성 의식
   1) 기녀시조에 나타난 성 유희
   2) 사설시조에 나타난 성욕
      (1) 邪戀과 賣買春의 장면화
      (2) 파계승의 파행적 성 탐욕
      (3) 남근(penis)의 은유와 誇張
      (4) 성행위에 대한 몰입과 탐닉
4. 결론

1. 서론

우리 문화에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사회적 조건인 성별(gender)과 육체적인 쾌락 및 욕망을 영유하려는 방식인 성(sexuality)은 不可分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성이 가장 근원적이고 자연적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한다. 그리고 남녀의 성적 본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관

*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부교수

념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본성적으로 성적 충동이 강하다고 여기는 차별적 인식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를 정당화시켰다.

우리 문학은 이러한 남성다움과 그 지배에 예속되어 있는 여성다움의 性差를 줄곧 인식하여 왔다. 본 논의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성차에 따른 성의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고전시가를 통해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우리 문학사에서 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은 강희맹의 ≪촌담해이≫나 송세림의 ≪어면순≫ 등 사대부들이 편찬한 소화집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소화집들은 남녀관계에 대한 다양하고 직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그 소화집이 사대부들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고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의 채록이라고 할지라도, 사대부들이 성 문제를 표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조선조에서 성 표현은 한 마디로 淫辭 혹은 陰詞로 폄하되었다. 어두운 말, 음탕한 노래 곧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시사에서 성욕과 에로스는 애정의 문제로 순치되어 나타난다. 이런 애정의 범주에 드는 작품으로는 애틋한 부부애를 다루고 있는 〈공무도하가〉와 〈황조가〉, 그리고 보다 노골적으로 性을 쟁취하고자 하는 〈서동요〉가 그 기원을 이룬다.

「서동요」는 백제 무왕이 서동이었을 때 선화 공주를 쟁취하기 위해 쓴 참요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적으로 상당히 노골적이다. '남몰래 서방을 얻어 두고는 밤마다 몰래 안고 간다'라는 적나라함이 그것이다. 그 후 고려가요에 이르러서는 이런 노골적인 성 표현이 그 농도로 보나 문학적인 가치로 보나 한국시가사상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만전춘〉 〈이상곡〉 〈동동〉 〈쌍화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성의 노골적인 성 표현은 고려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와 권력층의 무능, 그리고 서민들

의 당당함에서 기인한다. 고려사회의 전반적인 퇴폐적 분위기가 성욕의 노골화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가부장적인 유교이념 아래서 성은 금기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조선조 사람들의 성은 겹겹이 입는 옷 속에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 중기까지 도덕적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 정치, 문화 속에서 성은 은밀하게 숨겨져 왔다. 조선조 중기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감춰져 있던 성은 기녀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위축되고, 중인 및 승려 계층과 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성적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노골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의는 성애적 표현이 농후한 고려가요와 시조를 대상으로 고전시가에 나타난 성 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고려가요에 나타난 성과 사랑

고려가요는 우리 선인들이 남겨 놓은 귀중한 문학적 유산으로, 고려인들의 자유분방한 성에 대한 진솔한 표현이 돋보이는 시가이다. 본 논의에서는 조선조의 유학자들에 의해 외설적이라고 폄하되었던, 이른바 '남녀상열지사'에 해당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쌍화점〉 〈만전춘〉을 대상으로 성과 에로스적 사랑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쌍화점〉은 荒淫에 극했던 고려 후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는 작품으로서 성애의 표현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雙花店에 雙花사라 가고신던
回回아비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숨이 이 店 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감 삿기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긔 자리예 나도 자라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긔 잔뒤 ᄀᆞ티 덦거츠니 업다

三藏寺애 브를 혀라 가고신뒨
그 덜 社主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ᄉᆞ미 이 뎔 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삿기 上座ㅣ 네 마리라 호리라.
(생략)

드레우므레 므를 길라 가고신뒨

우뭇龍이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ᄉᆞ미 이 우믈 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드리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생략)

술풀 지븨 수를 사라 가고신뒨
그 짓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이 말ᄉᆞ미 이집밧긔 나명들명
다로러거디러 죠고맛간 ᄉᆡ구바가 네 마리라 호리라
(생략)

위의 작품은 충렬왕때 吳潛, 金元祥 등이 新聲이라 하여 기녀들에게 가르친 노래로 육체적인 욕정과 성관계가 주요 모티브다.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나라한 성애의 표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려의 어린 소녀들이 회회아비인 색목인들과의 성희를 즐긴다. 여기서 고려 여성은 회회아비의 성적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자러 가리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 자신이 성적 욕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명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 같은 여성의 능동적인 성적 욕구는 삼장사 주지와의 밀애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성적으로 禁慾을 요구받는 사주가 내 손목을 쥐고 함께 자러 간다. 뿐만 아니라 제3연에서는 우뭇용으로 비유된 군왕을 정사의 대상으로 등장시키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애욕의 대상이 고려사회의 전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회회아비, 삼장사 주지, 군왕에서부터 부와 권력을 소유한 특수계층과는 거리가 먼 서민계층의 술집주인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고 있을 만큼 성욕을 긍정적으로 바라 본 고려인들의 성과 사랑 의식을 알 수 있다. 성애를 즐긴 여성의 노래나 그 노래를 듣고 성적 충동에 공감하며 함께 희구하는 여성 청자들의 모습, 그리고 '나며 들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모두 성욕의 충족을 희구하는 의식이 같다'라는 것에서 보편화된 성 의식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한 여인이 자신이 찾아갔던 공간에서 생긴 교류 및 관계 맺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여인에게 자랑하고 그것을 들은 다른 여인 역시 적극적으로 이에 동조하며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성욕을 긍정하고 추구하는 고려사회의 자유분방한 성 의식을 드러낸다.[1]

고려사회는 남녀의 정사에만 골몰하는 퇴폐적인 향락의 풍조가 만연했던 것 같다. 임금이나 귀족이나 서민이나를 막론하고 荒淫, 염정, 패륜에 빠졌던 혼란스러웠던 사회에서 遊女나 자색이 뛰어난 여인들이 총애를 받기에 이르렀다. 너나 없이 名妓가 되고 유녀가 되어 스스로를 즐기며 살았던 고려 여인들에게 〈만전춘〉은 대단히 인기가 있는 곡조였을 것이다.

어름위희 댓님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러주글망뎡
어름위희 댓님자리 보와 님

1) 강석중, 「쌍화점 소고」,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1, 집문당, 1992.

과 나와 어러주글망뎡
情둔 오ᄂᆞᆰ밤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耿耿孤枕上애 어느 ᄌᆞ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ᄒᆞ니 桃花ㅣ 發ᄒᆞ두다
桃花ᄂᆞᆫ 시름업서 笑春風ᄒᆞᄂᆞ다 笑春風ᄒᆞᄂᆞ다

넉시라도 님을 ᄒᆞᆫ덕 녀닛景 너기다니
넉시라도 님을 ᄒᆞᆫ덕 녀닛景 너기다니
벼기시더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올하 올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어듸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콧 얼면 여흘도 됴ᄒᆞ니 여흘도 됴ᄒᆞ니

南山에 자리보와 玉山을 버여 누어
錦繡山 니블안해 麝香각시 아나누어
南山애 자리보와 玉山을 버여 누어
錦繡山 니불안해 麝香각시를 아나 누어
藥든 가슴을 맛초옵사이다. 맛초압사이다
아소 님아 遠代平生애 여힐술 모ᄅᆞ옵새

오리야 오리야 어린 빗오리야
여흘랑 어디두고 沼에 자러 오느냐
沼곳 얼면 여흘도 돏으니 여흘도 돏으니

〈만전춘〉의 화자는 얼음 위에 댓잎자리를 깔아 만든 잠자리 위에서 님과 내가 얼어죽을망정 정든 오늘밤이 더디 새기를 바란다.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성희를 즐기겠다는 고려 여인의 진솔하다 못해 치열한 성교 의식의 단적인 표현이다.

남산에 자리를 보와 玉山을 베고 누워서 금수산 이불아래서 예쁜 각시와 가슴을 맞추자고 노래하는 5연의 적나라한 성희 묘사는 상당히 대범하다. 고려사회는 처첩의 사회였다. 여흘과 소의 갈등은 한 남자를 두

고 처와 첩의 성희의 나눔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소콧 얼면 여흘로 오라는 남성에의 권유가 극히 자연스럽다. 이처럼 뜨거운 성애가 차가운 얼음 위에서 이루어지고 죽음조차 불사되는 에로스적 의식, 무한대의 시간을 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욕망의 카타르시스와 함께, 독수공방의 처참함 속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여인의 고독이 표출된다. 복숭아꽃, 그것은 여인의 요염한 자태를 상징한다. 화자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요염한 한 여인은 님과 함께 밤을 지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沼가 얼면 여흘로 와서 즐기자고 권유하고, 그 님과 함께 한 이불 아래서 가슴을 맞추며 즐기고자 하는 원대평생의 소원처럼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살자는, 연정의식이 풍기는 노래다. 이 시의 서정적 자아를 유녀로 못박을 필요는 없다.[2] 고려사회에서 성의 특징은 누구나 드러낼 수 있는 진솔한 감정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전춘〉은 고려인의 그 같은 자유분방한 성을 에워싼 문화, 관습, 제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고려사회에서는 性差에 따른 성 의식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같은 욕구로 사랑이 전제로 이루어 내는 성교와 정신으로 달성해 내는 사랑의 통합체인 에로스를 구가했다고 본다.

이와 같이 고려 여인들에게는 사랑의 열정이 있었고 애욕을 충족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었다. 성욕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끌어들여 본능적인 삶을 향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에게 성은 추하지도 천하지도 않은, 누구나 똑같이 지닌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된다.

고려조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과 사랑에 있어 평등 사상이 있었다고 본다.

---

2) 성현경, 「만전춘 별사」,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327면.

3. 시조 문학에 나타난 성 의식

조선사회는 근본적으로 일부일처제 사회로 가부장제적 가족 질서가 존재했다.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여성의 改嫁나 重婚은 금지됐다. 반면 남성의 경우 사족 출신 여자를 첩으로 삼는 것은 군주 외에는 불가능했지만 평민과 천민을 첩으로 삼는 것은 가능했다.[3] 內外法이 엄격했던 조선조 사회에서 부부는 손님처럼 공경하고, 동지로서 공경하고, 남성은 의리로 여성은 恭遜으로 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의 차별화가 보편화되었다. 그 같은 가족 질서는 성을 규제함으로써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물론 그 규제의 대상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었다. 여성은 성욕의 능동적인 주체로서가 아니라 단지 남성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존재했다.

물론 전통적인 사회에서도 열정적인 사랑은 분명히 존재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존재했던 사랑의 유형은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는 애정 관계로서 나타나는데, 이런 유형은 여성화자들이 쓴 한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명에 의해 결혼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행복한 윤리적 사랑의 유형으로서 고전소설에 많이 나타난다.

셋째, 혼전의 열정적인 사랑의 유형으로서 이 역시 고전소설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넷째, 婚後나 婚外라는 사랑의 유형으로 시조와 사설시조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물론 이 婚外 사랑은 남자에게는 풍류로서, 여성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서 이중적인 도덕적 판단이 적용되었다.[4]

---

3) 박광용, 「조선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시론」, 『성평등연구』 3집, 1999, 137-143면.

이처럼, 조선사회에서 성은 금기시 되고 은폐되었다. 그러나, 기녀시조와 사설시조에서는 바로 그 같은 금기와 은폐의 대상인 성을 담론화 한다. 본 장에서는 성담론의 문학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시조를 대상으로 그에 나타난 성 의식의 여러 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녀시조에 나타난 성 유희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여하는 여성성이 어머니·아내·애인으로서의 용모, 성격, 태도라면, 남성성은 부양자·가장으로서의 성격, 용모, 태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부장적 문화가 구성하는 젠더 이미지에서 여성은 이타적, 허영성, 자상함, 순종적, 수동적, 감성적, 관계중심적이고, 남성은 능동적 결단력 추진력 적극성 합리적 이성적 성취 지향적으로 이미지화 하고 있다.[5] 지나치게 단순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러한 이분법이 존재하던 조선조 사회에서 유일하게 제외 될 수 있었던 신분이 기녀들이었다. 그러면, 먼저 조선시대 사랑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 ᄉᆞ랑이 엇더터니 둥그더냐 모나더냐
기더냐 자르더냐 밟고 남아 자힐러냐
ᄒᆞ그리 긴 줄은 모로ᄃᆡ 끗 간ᄃᆡ를 몰니라

〈李明漢 악학습령 191〉

㉯ 思郎이 어인 거시 삭 나며 옴 돗ᄂᆞᆫ다
長安 百萬家에 너추러도 지건졔고
아모리 풀려 ᄒᆞ여도 못다 풀가 ᄒᆞ노라

〈영언유초 101〉

---

4) 함은선, 「중국 고대 문학에 나타난 사랑」, 『전통과 사회』 13, 2000, 96-111면.
5) 이선옥, 「로맨스 서사와 젠더」, 『문학과 사회』, 문학과 교육 연구회, 2000, 겨울, 51-53면.

㉰ ᄉᆞ랑 ᄉᆞ랑 고고이 ᄆᆡ친 사랑 원 바다ᄅᆞᆯ 두루 덥는 그물 ᄀᆞᆺ치 ᄆᆡ친 ᄉᆞ랑
왕십리 답십리라 춥이 너출 슈박 너출 얼거지고 트러져서 골골이 버더 가는 ᄉᆞ랑
아마도 이 님의 ᄉᆞ랑은 ᄀᆞᄌᆞ 업슨가 ᄒᆞ노라

〈朴文郁 악학습령 948〉

㉱ 내 思郎 놈 주지 말고 놈의 思郎 貪치 마소
우리 두 思郎에 雜思郎 幸혀 섯길ᄉᆡ라
一生에 이 思郎 가지고 괴야 술녀 하노라

〈악학습령 1020〉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채롭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교를 포함하는 용어[6]라고 할 때 위의 사랑은 다분히 개념적이다.

㉮에서는 사랑의 모양에 대해 논하고 있다. 둥근 모양인지 모난 모양인지 긴지 짧은 형태인지 모르나 아무튼 끝을 알 수 없다는 무한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에서는 사랑은 싹이 나고 움이 트며 온 나라 백성에게 다 넘쳐 나는 것인데 결국 사랑이 무엇인가를 풀려 하지만 못 다 풀고 있다는 잡히지 않는 사랑관념이다.

㉰에서는 그물 같은 사랑이어서 온 바다를 두루 덮을 수 있다. 이것은 애정의 넓은 폭을 이야기하고 있다. 골골이 안가는 데 없이 퍼져 가는 사랑의 가없음은 아마도 남녀간의 애정, 부모의 사랑 등 어떤 사랑의 형태에도 들어맞는다.

㉱에서는 내 사랑도 남을 주지말고 그렇다고 남의 사랑도 탐내지 말라는 투에서 매우 여유를 부린다. 일생에 한 사랑만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잊지 않는다.

기녀들은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사고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상대이

6) 오생근 윤혜준 공편, 『성과 사회』, 나남사, 1998, 35면.

다. 누구나 성관계를 원하면 거리낌 없이 해야하고 또는 자신이 상대를 찾아 나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하는 위치에 선 필요악적인 존재였다. 조선조 시대에서는 기녀들은 정규교육을 받아 엘리트 계층으로 자리잡으면서 또한, 성애 대한 자유도 만끽할 수 있었던 특수한 위치에 있다. 양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생첩을 두었고 관가에 속한 기생들은 관직으로 부임하는 수령들에게 의무적으로 수청을 들어야 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정절을 목숨과 동일시하였던 조선조 여성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성애를 즐기며 생활하였다. 그들은 주로 양반층의 사대부들과 수작하며 부르는 시조창을 즐겼다.

양반 계층 속에서도 서인의 우두머리였고 한시를 출중하게 잘 쓰고 한글 문학에 대가인 송강 정철이 기생과의 놀음에서는 얼마나 질펀하게 성희를 즐기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가 있다. 먼저 강계의 기생이며 송강의 기생첩이었던 진옥의 시조다. 대정치가인 정철이 적소 생활에 대한 울분을 달래기 위해 기생첩을 두고 술로 세월을 보낼 때의 풍류이다.

鐵이 鐵이라커늘 섭鐵만 너겨써니
이제야 보아ᄒᆞ니 正鐵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블무 잇더니 뇌겨 볼가 ᄒᆞ노라

〈근화악부 389〉

송강 정철을 유혹하고자 하는 노래다. 鐵의 종류를 이야기 한 후 正鐵이라 할지라도 여인의 생식기인 골블무로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가이며 문학인인 당대의 풍류를 자랑하던 정철이 일개 기생의 성희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며 동조하는 시조창에 대한 답가다.

玉을 玉이라커늘 燔玉만 너겨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眞玉일시 젹실ᄒᆞ다
내게 술송곳 잇던이 ᄲᅮ러볼가 ᄒᆞ노라

〈근화악부 391〉

송강이 燔玉이라 함은 모근옥이라는 뜻이고 眞玉은 번옥에 대해 참옥을 뜻하니 기녀 진옥을 가리키는 것이다. 살송곳은 살(肉)송곳으로 송강의 성기며 그것으로 참 玉으로 된 진옥의 성기를 뚫을 수 있다는 장담이다. 또한, 철은 正鐵이며 역시 鄭撤과 同音異義다. 정철도 살송곳을 가진 평범한 남성임에 틀림없다. 그 송곳으로 眞玉 기녀첩과의 동침을 하고 싶다는 성적 욕망의 표출이다. 송곳이라는 남성의 성기와 골풀무라는 여인의 풍만한 성기로 대칭 되어 나타난다. 기녀들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허락되었던 사랑놀이다. 풍류객으로 임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풍류객인 임제와 선조때의 평강 기생이었던 한우의 性戱가 또한 양반들의 성에 대한 노골적인 풍류를 알게 한다.

北天이 묽다커늘 雨裝업시 길을 나니
山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춘비로다
오늘은 춘비 마자시니 얼어 잘싸 ᄒᆞ노라

〈병와가곡집 197〉

어이 얼어 자리 므스일 얼어 자리
鴛鴦枕을 翡翠衾을 어듸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춘비 마자시니 녹아 잘싸 ᄒᆞ노라

〈교주 해동가요 141〉

이 시조는 수사의 솜씨가 뛰어나다. 찬비는 기생 이름인 寒雨라는 이름을 은유화했고 임제는 찬비에 비유된 한우를 찾아 시로써 여유와 풍류를 즐긴다. '찬 이불 속에서 혼자서 주무시렵니까, 저와 함께 따뜻하게 주무십시오'라는 뜨겁고도 은근한 권유가 양반 계층으로 대변되는

임제의 애정행각을 그나마도 유화시켜주고 있다. 양반의 도덕적인 체면에 손상 가지 않게 하는 한우 기녀의 기지가 돋보이는 시다. 임제는 대과에 급제하여 잠시 벼슬에 나갔으나 당시 선비들이 동서로 싸우는 당쟁을 개탄하고는 명산을 순례하며 시와 음주로 여생을 보낸 호방한 사람이다. 이런 임제가 한우에게 수작을 걸고 그 수작에 대한 한우의 답가가 이루어진다. 낭만적인 에로티시즘이라 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이 죽을 때까지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7]이라면 그것은 기녀들의 삶과 문학에서 나타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기녀들은 긍정적으로 자신의 임무이기도 한 성을 방편으로 남성의 성적 충동·성적 욕구를 훌륭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활짝 열어 조선조 금기된 성의 문화를 주도해 나간 특수한 계층이기도 하다.

위의 두 시를 통해 양반들의 성희에 대한 감각을 엿볼 수 있었다. 풍류를 앞세운 낭만이 있어 직설적이지 않은 은유적인 性愛이나 그래도 도덕을 앞세운 사대부들이고 보면 역시 파격적인 음설이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조선조 사대부들의 이중 생활을 기녀 시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 낮에는 도덕 군자요, 밤에는 성적 욕구를 쫓는 性的인 남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면모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기녀들은 양반들과의 포괄적인 교류를 통한 성행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성적 사랑을 추구하고자 했다.

2) 사설시조에 나타난 성욕

(1) 邪戀과 賣買春의 장면화

사설시조에서는 性慾을 추구하는 노래들이 다수 있다. 너나 할 것 없

7) 본피터 부룩스 지음, 이봉지 한애경 옮김,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502~503면.

8) 김명희, 『옛문학의 비평적 시각』, 태학사, 1997, 155~185면.

이 성행위와, 성적 욕망에 가득찬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조선조 가부장제 권력이라는 명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미 사설시조에 나타난 성 의식을 본다면 이미 가부장제란 허울뿐인 이념임을 가늠하게 한다. 그만큼 대담하고 솔직하고, 진솔하다 못해 상스럽기까지 한 노래들이 불려왔다는 것이다. 남성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성적 동물이고 여성은 정숙한 존재이므로 부드러움, 섬세함으로 애정이 넘치는 낭만적인 여성으로 그려져 왔던 성차별화된 고정관념이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먼저, 부정된 성의 행위와 매매춘에 대한 노래를 고찰하고자 한다.

> 니르랴 보자 니르랴 보자 내 아니 니르랴 네 남진 ᄃᆞ려
> 거즛 거스로 물 깃ᄂᆞᆫ 체하고 통으란 나리워 우물 젼에 노코 쏘아리 버서 통조지에 걸고 건너 집 쟈근 金書房을 눈기야 불너 내여 두 손목 마조 덥셕 쥐고 슈즌 슉덕 ᄒᆞ다가셔 삼밧트로 드러가셔 무스 일 ᄒᆞᄂᆞᆫ지 존 삼은 쓰러지고 굴근 삼대 ᄭᅳᆺ만 나마 우즑우즑 ᄒᆞ더라 하고 내 아니 니르랴 네 남진 ᄃᆞ려져 아회 입이 보다라와 거즛말 마라스라 우리ᄂᆞᆫ 마을 지어미라 밥 먹고 놀기 하 심심ᄒᆞ여 실삼 키러 갓더니라
>
> 〈병가 2297〉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아희'의 협박으로 시작된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 화자에게 남편에게 이르겠다고 윽박지르면서 자기가 직접 본 성희장면을 중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희의 언술을 통해서 부도덕한 한 여인의 행실에 대한 비난과 그것에 대한 변명이 실감나게 제시되고 있다. 물을 길러간 아낙이 건너 집 '쟈근 김서방'인 외간 남자와 삼밭에서 부정한 정사를 벌이는 행위를 목도한 아희의 진술을 통해 비행의 성행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행을 저질은 여인이 작은 서방과 삼밭에서의 이루어진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조 여인들의 노골적인 성 의식을 엿보게 한다. 여성화자가 남성을 유혹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주체 인물임에 틀림없다. 다만 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풍자와 은유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직설에서 시선을 바꾸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억압되었던 성의 문제가 인간의 본원적인 욕구의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조선조가 내세웠던 유교적 도덕관 역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가하면 사설시조에는 몸을 파는 여인, 주탕, 서방질 잘하는 틍기, 女妓 등이 실제로 성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래[9] 사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 후기에 이르면 고려조와 마찬가지로 성의 문란이 상당했던 것 같다.

조선조에 있어서 성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잣대로 재어야만 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는 여전히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정절을 지켜야 하는 열녀문화권이면서 이면적으로는 매매춘이 스스럼없이 자행되었던 사회가 아니었나 한다.

> 재너머 莫德의 어마네 莫德이 ᄌᆞ랑 마라
> 내 품에 드러셔 돌곗즘 자다가 니 ᄀᆞᆯ고 코 고올고 오좀 ᄊᆞ고 放氣 ᄲᅢ니 춤盟誓개지 모진 내 맛기 하 즈즐ᄒᆞ다 어셔 ᄃᆞ려 니거라 莫德의 어마
> 莫德의 어미년 내ᄃᆞ라 發明ᄒᆞ야 니르되 우리의 아기 ᄃᆞᆯ이 고림症 ᄇᆡ아리와 잇다감 제 病 밧긔 녀나믄 雜病은 어려셔브터 업ᄂᆞ니
>
> 〈악학습령 995〉

막덕이를 데리고 사는 한 남성의 고발이다. 장모격인 막덕 어미에게 막덕이가 잠버릇이 험하고 냄새가 심해 지긋지긋하니 데리고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막덕이 어미가 '자기 막내딸이 고림증과 배알이는 있었는데 그 밖의 다른 질병은 없다'라는 변명을 통해 막덕이가 문란한 성

9) 김명희, 「사설시조의 인물형상고」, 『시조학 논총』 제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생활로 인해 성병인 임질이 걸렸다는 것을 드러내어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한다. 막덕 모녀는 성을 도구 삼아 생활해 가고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이고, 조선조 근엄한 시대에도 하층민에게는 임질이라는 무서운 성병이 성행했음을 입증한다. 한편, 향반인 사람들도 낙향하여 기생들과 성관계를 하며 세월을 보내는 내용으로 된 시조도 여럿 된다. 향반층의 인물로는 김약정, 손약정, 이봉헌, 우당장, 남권룡, 조당장 등 여러 명이 한 기생을 데리고 노는 장면을 연출한다.

> 孫約定은 點心을 츠리고 李風憲은 酒肴를 중만소
> 거문고 伽倻琴 奚琴 琵琶 笛 觱篥 杖鼓 巫鼓 工人으란 禹堂掌이 드려오시
> 글짓고 노릐 부르기와 女妓花看으란 내 드 擔當 옴식
>
> 〈악학습령 984〉

조선조 향촌사회에서 향약의 임원인 약정과 향소직의 하나인 풍헌, 서원에 속한 당장 같은 관직이라 할 것도 없는 명예직 같은 임원들이 유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기 점심, 주효, 악공, 기생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글 짓고 노래하고 기생과 유희를 즐기는 일은 자신이 하겠다는 해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10] 기생과의 육체관계는 내가 담당하겠다는 역할분담이 '성관계'라는 것이어서 그들이 유흥을 통해 집단적 성희를 즐겼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2) 파계승의 파행적 성 탐욕

파계승이 많이 나타난 사회적 배경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불교의 위상이 약화되면서부터다. 조선 후기 승려들은 잡역에 시달리는 잡부의 역할까지 해야 했던 경멸과 천시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10) 김명희, 「사설시조의 인물형상고」, 시조학 논총 제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130-132면

시장으로 내려와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가장 속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한 파계승들의 노래가 사설시조라는 장르를 통해 많이 불려 졌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 어흠아 긔 뉘옵신고 건넌 佛堂에 動鈴僧이 내 올너니
홀 居士 홀로 주옵는 방안에 무스것 ᄒᆞ랴 와 겨오신고
홀 居士님 노감토이 버서 거난 말 겻틔 내 곳갈 버서 걸너 왓노라
〈병가 1986〉

㉯ 長衫쓰더 中衣 赤衫 짓고 念珠 ᄀᆞᆯ너 당나귀 밀치 ᄒᆞ식
釋王世界 極樂世界 觀世音菩薩 南無阿彌陀佛 十年 工夫도 네 갈듸로 니거스라
밤中만 암居士 품에 드니 念佛景이 업세라
〈청구 514〉

㉰ 즁놈도 사ᄅᆞᆷ인양 하야 자고 가니 그립ᄃᆞ고
즁의 송낙 베옵고 내 쪽도리란 즁놈 베고 즁놈의 長衫은 나 덥습고 내 치마란 즁놈 덥고 자다가 ᄭᆡ야 보니 둘의 思郎이 송낙으로 ᄒᆞ나 쪽도리로 담북 이튼날 ᄒᆞ던 일 生覺ᄒᆞ니 못 니즐가 하노라
〈청구 552〉

㉱ 窓 밧게 긔 뉘오신고 小僧이올소이다
어제 저녁의 動鈴ᄒᆞ랴 왓던 즁이 올너니 閣氏님 자는 房 족도리 버서 거는 말 겻틔 이너 쇼리 용낙을 걸고 가자 왓소
져 중아 걸기는 걸고 갈지라도 後ㅅ 말이나 업게 ᄒᆞ여라
〈악학습령 937〉

㉲ 듕과 승과 萬疊山中에 맛나 어드러로 가오 어드러로 오시는게
山 죠코 물 죠흔ᄃᆡ 곳갈씨름 부쳐보오 두 곳갈이 ᄒᆞᆫᄃᆡ 다하 너픈너픈 ᄒᆞ는 樣은 白牧丹 두 퍼귀가 春風에 興을 계워 흔들
흔들 휘드러져 넘노는 듯
암아도 空山에 이 쐴음은 즁과 僧 둘 ᄲᅮᆫ이라
〈박문욱 청요 74〉

㈅ ……전략
남이셔 중이라 하여도 밤中만 ᄒᆞ여셔 玉 ᄀᆞᆺ튼 가슴 우희 슈박 ᄀᆞᆺ튼 머리를 둥굴 썰썰 썩걸 둥굴 둘궁둥실 둥굴러 긔여 올라 올져긔ᄂᆞᆫ 내사 죠해 중 書房이

〈청구 577〉

파계한 중의 음란한 성행위의 여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 麗末이후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수도승들의 풍기, 紊亂이 시적 제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 홀거사(비구승)와 동령승(비구니승)의 대화를 통한 은근한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령승이 홀거사 자는 방을 침입하여 수작을 떠는 것이다. 물론 홀거사 방에 자러 들어가는 동령승을 홀거사가 다 알면서도 너스레로 물어보는 해학이 들어 있는 파계승들의 성희를 다루고 있다. 이들 승려의 성적 비행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흥미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었고 당대 불교 폐해나 승려들의 타락상을 짚어낼 수 있다고 한다.[11]

㉯의 시조에서도 홀거사 방에 밤마다 자러 들어가는 중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염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밤마다 성희를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성욕이 가득한 중을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에 나타난 사설에도 화자가 여성인데 중과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 중을 계율을 지켜야 하는 승려가 아닌 성욕의 대상인 한 남성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여인은 지난밤에 치른 성희가 즐거워 잊을 수 없다는 고백적인 토로를 통해 다시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적극적인 성애의식을 표출했다.

㉱의 시조에서도 자러 들어오는 중에게 하는 한 여인의 말이 스스럼

11) 민찬, 「파계승 사설시조의 유흥적 단면」, 『백영 정병욱 선생 10주기 추모 논문집 간행위원회』, 집문당, 1995, 840~841면.

이 없게 느껴져 자연스럽게 성을 누려왔던 조선조 여인들의 성 의식을 보게된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동령승이란다. 중에게 이르는 말이 자고는 가되 혹 말이나 없게 하라는 여인네의 담론이 에로틱하다.

㈑의 박문욱 작품에서는 여승과 남승이 첩첩산중에서 만나 성희를 즐기는 것을 희화하고 있다. 또한, 쾌락에 젖어 성희를 즐기는 장면을 '두 곳갈이 한듸 다하 너픈너픈 하는 양은 백목단 두 퍼귀가 춘풍에 휘도는 듯' 하다는 비유된 묘사를 통한 성 장면이어서 여승과 남승의 성 놀이가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다.

㈒의 시조에서도 남이야 중이라 비웃건만 나 여성인 화자는 '밤중만 되면 중의 옥 같은 가슴을 내 가슴 위의 올려놓고 수박 같이 빡빡 깍은 머리가 둥실 둥실 기여 올라 올 때, 그래서, 나와 함께 밤새 쾌락을 쫓는 중이 나는 좋아 죽겠다'는 중과의 성적 욕망을 마음껏 누리는 여성 화자의 만족한 성적 쾌락에 대한 고백의 담론이다. 이처럼, 중들의 파계에 대한 시조에서 비구승과 비구니승과의 관계, 비구승과 창녀와의 관계, 비구승과 속세 여인과의 관계, 등으로 나타난다.[12]

이처럼, 조선조 시대에 불교의 타락은 승려의 타락으로 이어져 중은 종교의 포교를 하는 구원자로서의 존재가 아닌 성희를 즐기며 살았던 일탈된 존재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신경숙은 그들 중은 시정인과 다를 바 없는 속성을 지닌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어서 계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13]

조선조 후기에 중들의 성적 행각은 서민보다 더 노골화되었다.

---

12) 이난주, 「사설시조의 연행성과 성의식 연구」, 교원대 석사논문, 2000, 74면.
13) 신경숙, 「初期 辭說時調의 性인식과 市井的 삶의 수용」, 『한국문화 논총』 16집, 1995, 201~221면.

(3) 남근(penis)의 은유와 誇張

여성이 남성의 성적 능력을 재고 성기를 과감하게 은유하여 표출하고 있는 시조가 있다.

㉮ 高臺廣室 나는마다 錦衣 玉食 더욱 슬타
銀金寶貨 奴婢 田宅 비단치마 大緞장옷 蜜花酒 겻칼 紫的鄕織 져구리 똔머리 石雄黃 오로다 꿈자리 ᄀᆞᆺ고
眞實로 나의 平生 원ᄒᆞ기는 글 잘ᄒᆞ고 말 잘ᄒᆞ고 얼국개쟈ᄒᆞ고 픔즈리 잘ᄒᆞᆫ ᄂᆞᆫ 져믄 書房인가 하노라

〈청구 559〉

㉯ 石崇의 累鉅萬財와 杜牧之의 橘滿車風采라도
밤일을 ᄒᆞᆯ적의 제 연장 零星ᄒᆞ면 쑴자리만 자리라 긔 무서시 貴할소냐
貧寒코 風度ㅣ 埋沒할지라도 제 거시 무즑하여 내 것과 如合不節 곳하면 긔 내님인가 하노라

〈청진 546〉

㉮의 시조에서 여성으로 설정된 화자는 남성의 기준을 재물도 아니고 인물도 아닌 오로지 성기의 기능을 제 일로 삼는다는 여성이 화자다. 금은 보화 훌륭한 옷 다 필요 없고 여성이 원하는 최고의 남성상은 글 잘하고 말 잘하고 얼굴 반반하고 밤중에 품자리 잘하는 젊은 서방이다. 신분사회에서 여성이 원하는 것이 높은 신분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도 아니라는 것은 신분 제도의 파괴 현상이라고 본다. 다만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외양적인 요소만을 들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적 능력이 있는 남성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남성의 능력 중에 육체적인 성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로의 전이 현상을 볼 수 있다. 여성화자는 구체적이고도 직설적으로 남성을 평가하려고 한다.

㉯의 작품에서도 재물로 이름난 석숭과 문장으로 이름난 두목지 등

이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밤일만을 잘하는, 말하자면 성 관계에서 여성인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남성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비록 그런 남성이 빈한하고 얼굴이 잘 생기지 못할 지라도 나의 성적 욕구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는 자라면 그런 님이 '바로 내가 원하는 님'이며 '최고의 남성'이라는 것이다.

㈏의 시조에서는 ㈎의 시조에서 가치로 인정받던 外樣的인 것까지도 상관이 없다고 하여 남성성의 제일 순위가 성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남성에 대한 가치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사설시조를 통해 알 수 있다. 유교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개인에 대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창출되면서 성을 이해하고, 성욕을 바라는 여성의 시선을 감지할 수 있다. 기존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과 경멸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개성적인 삶의 연출로 이어진 개성 본능에 대한 욕구 의식이 성관계, 성애의식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性이 조선조에서는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어서 은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이 한 특징이기도 하다.

다음 시조 등에서 성기의 비유는 실로 대담하다.

㈐ 閣氏네 외밤이 오려논이 두던 놉고 물 만코 딕지고 거지다 ᄒᆞᆫ 데
　莖作을 부대 쥬려 ᄒᆞ거든 연장 됴한 날이나 주소
　眞實노 날을 내여 줄작시면 가뢰 들고 씨지어 볼가 하노라
〈해동 563〉

㈑ 내 쇼시랑 일허ᄇᆞ린지 오ᄂᆞᆯ 조ᄎᆞ 촌 三年이 오려니
　젼젼퇴퇴 문젼ᄒᆞ니 閣氏닉 방안의 셔 잇드라 ᄒᆞ되
　柯枝란 닉 쓰여 쓸지라도 ᄌᆞ루 드릴 구멍이나 보내소
〈악학습령 809〉

㉮ 얽고 검고 킈 구렛나룻 그것조차 길고 넙다
잠지 아닌 놈 밤마다 비에 올라 조고만 구멍에 큰 연장 너허 두고 흘근 홀제는 愛情은 킈니와 泰山이 덥누르는 듯 존 放氣소릐에 졋먹던 힘이 다 쓰이노미라 아므나 이놈을 드려다가 百年同住ᄒᆞ고 永永 아니온들 어너 개쏠년이 싀앗새옴 ᄒᆞ리오

〈청구 569〉

㉯의 작품은 '각시네 외따로 떨어져 있는 논이 굉장히 좋은데 굳이 소작을 주려면 연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오, 또 진실로 나에게 줄 것 같으면 가래 들고 씨지어 볼까 한다'라는 전반적인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장 가래는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며 '씨지어 볼가 하노라'는 구체적인 육체의 결합을 암시하고 있다.

㉰의 작품에서도 쇼시랑은 남성의 성기를 암시하며 구멍은 여성의 성기를 암시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성기의 비유를 통한 솔직한 본능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에서도 그와 동침한 '남자의 성기가 매우 길고 넓고 젊지도 않은 놈이 밤마다 배에 올라 조그만 구멍에 연장을 넣어 두고 흘근흘근 할 적에 애정은 고사하고 태산이 누르는 듯 젖 먹던 힘까지 다 쓰인다'라는 성행위의 묘사에 성기 비유로 해서 매우 비속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전락한다. 상말로 털어놓은 심정인데 역시 성기의 묘사가 구체성을 띤 은유라 속어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농경을 주로 하던 조선조라서 성기의 은유도 농구를 쓰고 있다. 이외에도 싸리비, 잇비, 방망이 홍두깨, 두레박 등으로 남성의 성기를 은유화 하고 있다[14].

이처럼, 사설시조에서 나타난 한 특질인 직설적인 언술이 주는 의미는 대단하다. 그런가 하면 시조에 나타난 성행위의 묘사를 통해 시조에

14) 이영철, 「성소재 사설시조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 2001, 41~42면.

서의 몰입과 탐닉 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4) 성행위에 대한 몰입과 탐닉

성행위의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인 사설이 있다.

㉮ 드립더 ᄇᆞ드득 안으니 세 허리지 ᄌᆞ늑ᄌᆞ늑
紅裳을 거두치니 雪膚之豊肥ᄒᆞ고 擧脚蹲坐ᄒᆞ니 半開한 紅牧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進進코 又退退ᄒᆞ니 茂林山中에 水春聲인가 ᄒᆞ노라

〈병가 937〉

㉯ 밋남진 그놈 紫총 벙거지 쓴 놈 소대書房 그놈은 삿벙거지 쓴 놈 그놈
밋남진 그놈 紫총 벙거지 쓴 놈은 다 뷘 논에 정어이로되
밤 中만 샷벙거지 쓴 놈 보면 실별 본 듯 하여라

〈청육 1104〉

㉰ 셋괏고 사오나온 져 軍牢의 쥬졍보소 半龍丹 몸똥이에 담벙거지 뒤앗고셔
좁은 집 內近하되 밤듕만 돌녀들어 左右로 衝突ᄒᆞ여 새도록 나드다가 제라도 氣盡턴디 먹은 濁酒 다 거이네
아마도 酗酒를 잡으려면 져 놈브터 잡으리라

〈봉래(신헌조)〉

㉮에서 가는 허리를 붙들고 붉은 치마를 거두고 하얀 피부가 풍만하게 드러나고 다리가 반쯤 벌어진 것이 봄바람에 부는 듯하다. 앞으로 뒤로 하니 숲 속 산중에 든 듯 하다는 성행위의 극치며 황홀경을 비유로서 묘사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현대 소설에서 쓰는 직설적인 언술보다 더 자극적인 비유다.

㉯에서도 남자 성기의 기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밋남진 그놈은 남편이다. 남편은 紫驄 벙거지를 쓰고 있다. 자총 벙거지는 위가 둥글고 전이 평평한 모자다. 또 다른 사람(情人)인 소대 서방은 삿벙거

지를 쓰고 있다. 삿갓 모양의 모자이다. 자총 벙거지나 삿벙거지는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은유다. 그런데 성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색적이다. 자총 벙거지를 쓴 남편은 추수가 끝난 후 허수아비처럼 쓸모가 없는데 비해 삿벙거지 쓴 간부는 쉴별 본 듯 새롭고 만족스럽다. 남편과 간부의 성적인 능력 평가를 여성 화자의 느낌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의 〈봉래악부〉에 수록된 신헌조의 작품에서도 氣盡토록 성행위를 하는 주정뱅이 남자의 본능적인 욕구를 읊고 있다. '굳세고 사나운 저 군에 소속된 남자의 주정보소. 반용단을 입은 몸뚱이에 담벙거지를 뒤로 벗어 넘기고 좁은 아녀자가 사는 집에 밤중에만 달려들어 좌우로 충돌하며 날이 새도록 있다가 힘이 빠졌든지 먹은 탁주를 다 토해 내는 술주정뱅이'의 성 놀이다.

남편과의 성관계도 여성의 성욕을 충족 시켜주지 못하면 간부들과의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찾아 나서는 일탈된 성욕에 대한 탐닉 의식을 보여준다. 그것은 조선조 사회가 성리학적인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능이 앞서고 자연스러움이 앞서는 사회로의 전이 현상이라 생각한다.

한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던 여성들은 한결같이 성에 대한 회고와 동시에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언술을 통해 먼저 지난밤에 이루어졌던 성희에 대한 회고를 하고는 이후에 간밤에 미처 다하지 못했던 욕구 충족에 대한 미련을 아쉬움으로 수놓으며 다른 날 밤에 또 한번 이루어질 그 욕망에의 환희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 간밤의 주고 간 그놈 암아도 못니즐다
瓦冶ㅅ놈의 아들인지 즌흙에 쏨니듯시 두더쥐 令息인지 국국기 뒤지듯시 沙工의 成伶인지 沙禦쩌 질으듯시 평생에 처음이오 민症이도 야르제라
전후에 나도 무던이 격거시되 참맹서 간밤 그놈은 참아 못니즐ᄭᅩ 하노라
〈해동383〉

㉮ 간밤에 자고 간 ᄒᆡᆼ초 언의 고개 넘어 어드믜나 머므는고
主人님 暫間 더새와지 糧食 ᄆᆞᆯ쿙 내옴새 동ᄒᆡ 銅爐口 되박 石刀내옵소 ᄒᆞ고
뉫짓 나근에 되엿는고
情이야 무엇시 重ᄒᆞ리만은 내못니저 ᄒᆞ노라

두 수 모두 여염집의 부인이 아닌 노는 계집들의 노래다. 남녀가 만난 장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 일로 가려져 있고 오직 미련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난다.

㉯에서는 여러 명과의 정사를 회고하고 있다. 기와를 굽는 놈, 두더지 같이 생긴 놈, 사공들, 모두가 이 여인을 거쳐간 남성들이다. 여러 명을 무던히 많이 겪어 온 시적 화자이나 지난밤에 자고 간 그 놈은 정말 미련과 함께 잊지 못한 것이라는 성적 욕망이 충족된 이후에 일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못 잊을 남성은 화자를 충분히 만족 시켜준 누군지 모를 남성이다. 다시 한 번 온다는 맹서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여기에서 여성 화자는 쾌락의 대상으로 남성을 찾고 있어 성적 쾌락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여성임을 알게 한다. 그리고 성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기도 한 매우 능동적으로 살고 있는 여성이다.

㉰에서도 어젯밤에 자고 간 남성에 대한 아쉬움이다. 어디에 머무는지 조차 모르는 그 남성에 대해 情은 그다지 중요치 않고 남성을 그리는 것은 오로지 남성의 肉慾에 대한 그리움뿐이다. 그래서, 못 잊겠다는 것이 시적 제재다.

위에 열거된 것처럼 성의 문제를 다룬 시조는 성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향유계층도 서민 양반, 중인, 기녀, 승려 등 종교인에서부터 귀족계층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언술을 통해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았다. 거리낌없는 묘사, 구체적인 행위, 성기의 은유 등 마치 나체 사진이나 春畵를 보는 듯하다. 이것이 조선조 시대에 시가에 나타난 性의식이다.

이처럼 직설적인 묘사로 현실적인 욕망을 주로 성으로 대체시키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대변하고 있는 노골적인 성의 양상을 살펴왔다. 사설시조에서는 주된 담당층이 중인 이하에 신분에서 나타난 승려나 기녀, 서민, 향반이었고 고시조에서는 기녀와의 수작에 의한 사대부의 성놀이다.

따라서, 사설시조에 나타난 여성의 성 의식은 매우 자유롭고 노골화되며 성욕을 위해 살아가는 능동적인 주체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고전시가에서 가장 통속적인 두 갈래의 성에 대한 관념이 있다. 하나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性 의식으로 양반 규수들과 도학자들의 차지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개방적이며 향락적인 에로티시즘으로서 기녀와 서민과 일부 사대부 풍류객들에게서 확인된다. 우리 문학사에서는 인간의 성을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파헤치려고 하지 않았다. 성은 감추는 것, 은밀한 것, 천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전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엄격하고 부자연스러운 도덕률은 호색문학을 금기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위에 열거된 고려가요와 일부 시조 등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발견하게 된다.

성애를 희구하는 고려가요에서 우리는 성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로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조선조 유교 이데올로기에서는 성이 부정되고 은폐되어야 할 것으로 철저히 배척 당했다. 후렴 구에 붙은 부자연스러운 '太平聖代' 운운은 그 단적인 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조라는 장르에서 평시조에서는 기녀들이 당

당하게 성애를 즐기려는 의식과 연정의식을 강하게 노출시켜 양반들을 성적 쾌락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표면적인 사대부들의 모습은 근엄함 엄숙함 淸壁 그 자체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면적으로는 기생첩을 두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중의 생활을 즐겼다. 그런가하면 조선조 후기 사설시조의 발달과 함께 중인을 비롯한 서민 그리고 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 군이 등장함과 동시에 관념적인 노래가 아닌 구체성을 띤 성 노래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지하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특히 파계승의 노래는 보다 노골적이고 사설이 길어지면서 천박하게 불려진 노래였다. 이쯤 되면 평민들에게 성은 개방되어진 놀이요, 노래로 불린 환각적인 요소로 의식화되어진 것이다. 심지어 매매춘 등 성기를 은유화 하면서까지 불려진 성과 사랑, 에로티시즘 적인 노래는 향유계층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찬, 「사설시조에 나타난 애정형상과 세계관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성면, 「사설시조의 애정 표출 양상고」, 군산대학교 교대대학원, 1998.
윤영숙, 「시조에 나타난 남녀 애정 표현 양상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김종호, 「만전춘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1998.
이덕우, 「쌍화점논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4.

김명희, 「사설시조의 인물 형상고」, 『시조학 논총』 제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문학과 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제14호, 2000 겨울호.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성평등 연구』 제13집, 1999.
김명희, 『옛문학의 비평적 시각』, 태학사, 1997.

국어국문학연구총서 4, 『시조문학연구』, 정음사, 1980.

전규태, 『고려가요의 연구』, 백문사, 1991, 109~118면.
강석중, 「쌍화점 소고」, 『한국고전시가 작품론』 1, 집문당, 313~320면.
박을수, 『한국시가문학사』, 아세아문화사, 1997.
최동현 임명진 편, 『페미니즘 문학론』, 한국문화사, 1996.